

격 려 사

오늘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며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귀곤 상임회장님과 전국협의회
사무처 등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의 활성화
를 위해 애쓰시는 전국 지자체별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21세기 세계의 경제·사회질서를 지배할 보편적 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작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
회의(WSSD)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WSSD회의에서는 지난 92년 리우회의 이후 10년동안
진행된 의제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였는데,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우수사례로 국내지방의제21의 활동내용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사업은 단기간내에 놀랍게 성장하여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90%이상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지방의제21이 전국적인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지자체별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은 지역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 주민, 기업, 행정기관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지방의제21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WSSD회의에서는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인 「WSSD 이행계획」을 최종결과물로서 채택하고 각국이 이를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채택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현재 정부부처,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각 추진주체들이 실천해야할 주요추진과제들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약속하고 있듯이 우리는 바야흐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활성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제21에 명시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과 해결책이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의제내용중 상당부분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실현 불가능한 행동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 의제21의 추진성과는 곧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특히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전남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 다음주 예정된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설립 등은 또하나의 지방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전적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이행촉진법(가칭) 등을 제정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협력체계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총회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활동이 증진되어, 지방의제21의 충실한 이행이 보장될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이번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부산광역시 등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